

〈자료 2〉

謙齋 鄭澈筆 山水畫冊讚에 대하여

許英桓*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朴有道の 後序 |
| 2. 趙顯命의 前序 | 5. 맺음말 |
| 3. 李秉淵의 讚詩 | |

1. 머리말

지난해 가을 우리 문화재를 혈육처럼 사랑하고 아끼면서 모으고 있는 古馨 李元基¹⁾(1930년생) 님으로부터 24쪽의 書帖을 받은 후 이제야 한 편의 글을 발표하면서 공부가 짧고 재주가 모자람을 스스로 한탄한다.

250여년전의 조선장지 24장을 묶어 만든 서첩의 크기는 세로 43cm, 가로 28.5cm였다. 서첩의 형식은 題目(1장)·前序(1장)·讚詩(19장·21수)·讚文(1장)·後序(2장) 등으로 엮여졌다.

前序·讚詩·後序 등으로 보아 틀림없이 謙齋 鄭澈(1676-1759)²⁾의 산수화첩에 쓴 글들임을 알 수 있었고,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귀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题目的 글씨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篆書體로 아담하게 渾然太古(혼연태고: 오랜 옛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고르다)라 썼다.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동양미술사

1) 李元基는 그동안(40여년간) 수 많은 문화재를 모으고, 월간전문지인 文化財를 간행하고, 趙榮稭(1686-1761)의 필사본유고인 觀我齋稿를 발굴영인하고, 金正喜(1786-1856)의 묵난화첩인 阮堂先生畫蘭冊(全22楨·1815년작)을 영인복제하고, 民書百選을 발간하였다.

2) 조선시대 18세기의 산수화가 謙齋 鄭澈은 83년간 세상에 머물면서 수 많은 그림을 그렸고, 지금 남아 있는 그림만도 6백여점이 넘는다. 또 오늘날 경제 정선에 관해 쓴 글(논문·저서 등)도 수 십편이 넘는다.

2. 趙顯命의 前序

18세기 전반기에 영의정까지 지낸 歸鹿 趙顯命³⁾이 쓴 前序는 모두 6行 56字이고, 끝에 歸鹿 趙顯命 敬題라 밝히고, 趙顯命印(朱文方印)과 歸鹿(白文方印)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趙顯命(1691-1752)이 謙齋의 山水畫冊에 쓴 前序는 行書體로 단순명쾌하다. 원문과 번역 문은 다음과 같다.

國朝寶鑑續載國朝名士. 畫師鄭敬謙齋之畫迹極難搜覓. 其用筆精微神妙雲煙杳漠. 數尺之間
氣勢雄健瑰奇幽有此冊爲所觀之精品矣. 歸鹿趙顯命敬題.

(國朝寶鑑續纂 <또는 別篇> 에는 이 나라의 명사들에 대하여 실려 있다. 화가 겸재 정선의 그림은 매우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의 붓놀림은 자세하고 아주 묘하여 구름과 안개가 아득하고 막막하다. 수 척 사이 <작은 그림을 뜻함>에도 기세가 웅건하고 괴기하면서도 그윽하고 너그럽다. 이 책은 가지고 보기에는 가장 좋은 물건이라 하겠다. 귀록 조현명이 삼가 쓰다.)

영조(1694-1776, 재위 1724-1776)의 총애를 받으면서 豊原君에 봉해지고 영의정까지 지낸 조현명이 역시 영조의 총애와 후원, 그리고 白岳詞壇⁴⁾의 도움을 받고 활동하던 화가 정선의 그림을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현명의 겸재그림에 관한 시는 귀록집에 실린 수 백 수의 시 가운데에도 없다. 그러나 겸재와 가장 친한 문인이었던 사천 이병연(槎川 李秉淵, 1671-1751)은 겸재그림에 수 십수의 찬시를 썼다.⁵⁾ 따라서 그림은 볼 수 없고 찬시만 읽을 수 있지만 이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진다.

이 前序(조현명 작) 讚詩(이병연 작) 조현명의 사망(1752)과 이병연의 사망(1751)을 생각할 때 적어도 1750년이전에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겸재는 1759년에 사망하였다.

3) 趙顯命은 숙종17년(1691)에서 영조28년(1752)까지 61년간 세상에 머물면서 都承旨·判書·漢城判尹·領議政 등을 역임하였고, 호를 歸鹿·鹿翁 등이라 하였다. 저서로는 詩·疏·劄·啓·書·墓表·墓地銘·碑銘·序·記·贊·祭文 등이 실린 全20卷의 歸鹿集을 남겼다. 그런데 謙齋山水畫冊에 실린 序는 그의 歸鹿集에 없는 것이다.

4) 18세기 서울의 정치·문화·예술계의 중심세력이었던 三淵 金昌翁 (1653-1722)일가를 중심으로 조선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진경문화를 시·서·화 각 분야에서 꽃피운 친목단체이다. 시에는 槎川 李秉淵과 順庵 李秉成 형제, 그림에는 謙齋 鄭敬과 觀我齋 趙榮祐·澹軒 李夏坤 등이 있었다.

5) 목판본인 槎川詩抄(全1冊)에는 겸재그림에 대한 讚詩가 여러 수 실려있다. 또 겸재가 1710년(庚寅)에 그린 海嶽傳神帖과 1711년(辛卯)에 그린 楓嶽圖帖에도 수 십 수의 찬시를 썼다. 이 渾然太古에 쓴 찬시(槎川 李秉淵書라는 自書와 李秉淵印과 槎川이라는 두 도장이 찍혀 있는)의 글씨모양(書體)으로 보아 틀림없이 이병연이 짓고 쓴 것으로 믿어진다.

3. 李秉淵의 讚詩

이 渾然太古에 있는 찬시 21수가 사천 이병연이 1740년대에 짓고 쓴 것이라면 이병연은 80년간 세상에 살면서 40여년동안 수 십 수의 謙齋畫讚詩를 쓴 셈이다.⁶⁾

지금 남아 있는 찬시 가운데 최초의 것은 이병연의 39세와 40세때(겸재는 34세와 35세) 짓(해악전신첩과 풍악도첩에 쓴 찬시들)이니까 그렇다. 그들은 단순한 知己나 文士와 畫師 사이가 아니라 평생을 같이 한 형제 같았다고 하겠다.

渾然太古에 있는 21수의 찬시는 先行詩·本詩·終詩 등으로 나눌 수 있고, 7言詩와 5言詩(대부분 律詩)로 되어 있는데 題目은 없다. 아래에 붙인 제목은 필자가 시의 내용에 맞게 지은 것이다. 또 시는 겸재의 그림(21폭 또는 그 이상일 듯) 마다에 한꺼번에 쓴 것으로 믿어진다.

찬시를 순서대로 옮겨쓰고·한글음을 달고·번역하면 다음과 같다.⁷⁾

① 撫松遠眺

撫松遠眺江山遠(무송원조강산원)

소나무를 안고서 아득한 강과 산을 바라보면,

幽居不問是何年(유거불문시하년)

그윽한 삶이라 어느 해인지 묻지 않노라.

千里萬里極目望(천리만리극목망)

천리 만리 끝간데까지 바라보니,

多少愁緒滿心言(다소수서만심언)

수 많은 근심이 가슴에 가득하여라.

渺渺雲煙成虛境(묘묘운연성허경)

아득한 구름 연기는 텅 빈 자취 이루었고,

柳掩孤莊正宜居(유엄고장정의거)

버들로 단한 외로운 집 운둔하기 마땅하네.

詩書得意消永年(시서득의소영연)

마음에 맞는 시와 책으로 평생을 보내고,

靜觀無事心不倦(정관무사심불권)

일 없이 가만히 살피 조금도 게으름 없도다.

6) 일생동안 1만3천여 수의 시를 지은 이병연의 槎川詩抄에는 겸재그림에 대한 찬시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제목의 시들이 있다. 觀鄭元伯霧中畫毘盧峯·太古亭與元伯公美拈杜律韻·有小穿栽次朴公美示鄭元伯·元伯乘月登後崗獨坐作.

7) 이 찬시들에 걸맞는 겸재의 산수화를 몇 달동안 찾았으나 찾을 수 없어 아쉽지만 이렇게 그림 없는 찬시만 동료학자와 후학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草色樹聲人境裏(초색수성인경리)
 풀빛깔과 나무소리가 나는 사람 사는 것이요,
 仙山古刹舊山林(선산고찰구산림)
 오래 묵은 숲에 있는 선산과 옛절이어라
 賞觀寶冊得仙意(상관보책득선의)
 보배로운 이 책을 펼쳐보고 신선의 뜻 얻었고,
 可嘆人間有奇才(가탄인간유기재)
 세상에 기이한 인재 있음을 내 감탄했노라.8)

② 蓬萊仙者

萬里河山一望收(만리하산일망수)
 만리 경치를 한 번에 살펴보며,
 高坐雲山暢遐思(고좌운산창하사)
 구름산에 높이 앉아 아득한 생각에 잠겼어라.
 野水無人舟已去(야수무인주이거)
 강물엔 아무도 없는데 배는 이미 떠났고,
 故人未到心已馳(고인미도심이치)
 임은 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그를 그리네.
 蓬萊仙者何處去(봉래선자하처거)
 봉래산에 사는 신선은 어디로 갔나,
 古柯松樹徑中尋(고가송수경중심)
 옛 가지 소나무는 산길에서 찾았노라.
 雅咏詩句湖山曲(아영시구호산곡)
 그윽한 호산곡 한 가락 불러보며,
 清夏消暑不僻寒(청하소서불피한)
 서늘한 여름 기운을 떨치지 않는다네.
 屹山高峯千尺仞(홀산고봉천척인)
 천 길이나 드높이 솟은 저 봉우리여,
 碧霞雲裏倚神思(벽하운리의신사)
 푸른 노을 구름 사이로 신선 생각 해본다네.
 漫遊四方得妙悟(만유사방득묘오)
 부질없이 사방을 떠돌며 비로소 깨달음 얻었으니,

8) 이 찬시(先行詩라 할 수 있다)의 마지막 두 줄은 山水畫冊이 결재 정선이 그린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高人自在此山間(고인자재차산간)
신선은 아마도 이 산중에 계시리라.

③ 野水孤舟

野水停孤舟(야수정고주)
강물에 조각배를 멈추니,
淸風徐吹送(청풍서취송)
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네.
翠山宜春景(취산의춘경)
푸른 산은 봄 경치가 제격이라,
佳賞亡凡年(가상망범년)
아름다운 그 생각 속세를 잊었다네.
居士無煩意(거사무번의)
거사는 번다한 뜻이 없어서,
暢然山水間(창연산수간)
시원스레 산수간에 머물렀네.
吟咏多妙句(음영다묘구)
시 읊조림에 기묘한 구절이 많고,
淸談有雅人(청담유아인)
맑은 말씀하는 우아한 사람 있다네.
君自何方來(군자하방래)
그대는 어디서 오시는가,
客在水關中(객재수각중)
나그네는 수각 안에 있도다.
點染幽樹趣(점염유수취)
점점이 물든 그윽한 나무 정취에,
詩翁不寂寥(시옹불적료)
시인은 조금도 쓸쓸하지 않다네.
非得山中事(비득산중사)
산중에서 얻은 일 아니지만,
獨有疏野調(독유소야조)
홀로 야인의 가락 읊조린다네.
徘徊人不問(배회인불문)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묻는 이 없는데,
雲外醉江天(운외취강천)
구름 밖 강가에서 마음껏 취했노라.

④ 深山古刹

深山藏古刹(심산장고찰)
깊은 산에 옛 절이 있는데,
秋岑號長春(추잠호장춘)
가을 산 그 이름은 장춘이라네.
丹青妙筆在(단정묘필재)
그림에는 기묘한 솜씨 남아 있고,
揮毫生雲煙(휘호생운연)
휘호에는 구름기운 살아나도다.
翠谷散幽霧(취곡산유무)
푸른 계곡에는 그윽한 안개 흩어지고,
松柏有清味(송백유청미)
소나무와 잣나무엔 맑은 기운 남았어라.
山僧閱古卷(산승열고권)
산승은 옛 책을 들춰보고 있고,
野老釣澗魚(야로조간어)
시골 늙은이는 낚시대 드리웠네.
滿月清蒼澗(만월청창간)
보름달이 푸른 하늘 사이로 가득 비취니,
一紙跌和山(일지질옥화산)
한 종이에서 산과 어울렸다네.
沈思有妙悟(침사유묘오)
깊이 사색해 오묘한 이치 깨달으니,
佳境非人間(가경비인간)
아름다운 그 경치 인간세상이 아니어라

⑤ 四山無語

寒江寒樹寒山睡(한강한수한산수)
겨울 강 겨울 나무 겨울 산이 졸고 있는데,

畫師妙筆留古意(화사묘필유고의)
 화가의 오묘한 솜씨에 옛 뜻이 남았어라.
 野境半隱逐佳景(야경반은축가경)
 들 경계와 은자는 아름다운 경치를 따라 가고,
 風月清輝不可言(풍월청휘불가언)
 바람과 달의 맑고 빛남은 형언키 어려워라.
 四山無語立霜雪(사산무어입상설)
 사방의 산들은 말 없이 눈서리 맞으며 서 있고,
 無人江上有笛聲(무인강상유적성)
 사람 자취 끊긴 강에는 피리소리만 들려오네.
 令人難見古時境(영인난견고시경)
 사람에게 옛 경계를 보여주지 않더니만,
 却由圖畫生古情(각유도화생고정)
 문득 그림에서 옛 정취가 살아났네.
 無限神思在虛境(무한신사재허경)
 무한한 신선생각 빈 지경에 남았으니,
 九千峰裏尋幽境(구천봉리심유경)
 구천 봉 속에서 그윽한 경치 찾아보리.

⑥ 四望翠山

四望翠山連翠柳(사망취산연취류)
 주위엔 푸른 산이 푸른 버들과 이어졌고,
 詩仙半隱在船頭(시선반은재선두)
 시인과 은자가 뱃머리에 있다네.
 四時佳景閑中賞(사시가경한중상)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가롭게 감상하고,
 澗影溪流掩松竹(간영계류엄송죽)
 소나무와 대나무 그늘이 시냇물에 드리웠네.
 年年客來橫塘廬(연년객래횡당로)
 해마다 나그네가 횡당로로 오가고,
 細雨垂柳絲畫船(세우수류사화선)
 가랑비 오는 중에 그림배를 버들가지에 메었다네
 誰見詩人溪水上(수견시인계수상)

시냇가에 있는 시인을 누가 보았던가,
 歌吹一曲山水綠(가취일곡산수록)
 한 곡조 노래 부르니 산수마저 푸르구나.
 此中妙景誰人領(차중묘경수인령)
 이 중에 오묘한 경치를 누가 알아주리,
 唯有神仙在岸頭(유유신선재안두)
 오로지 신선만 강둑에 있구나

⑦ 海畔日出

天際霞光入水中(천제하광입수중)
 하늘 끝에서 노을 빛이 물 속에 들어가는 듯,
 水中天際一日紅(수중천제일일홍)
 하늘 끝 저 물 속에서 한 점 해가 붉어라.
 萬岑千山相紅(만잠천산상홍)
 천만 산봉우리가 붉게 타오르는 듯,
 人言此時日將出(인언차시일장출)
 사람들은 이 때 해가 뜬다고 말한다네.
 彷彿水底離珠宮(방불수저이주궁)
 마치 물 아래 이무기 사는 궁궐이 있는 듯,
 須臾一紙吐復落(수육일지토부락)
 잠깐 새 종이 가득 붉은 기운 토해내고 또 지네
 忽然萬丈車輪紅(홀연만장거륜홍)
 갑자기 만장이나 되는 붉은 수레바퀴가 솟으니,
 諸君臥立高石山(제군와립고석산)
 제군들이 높은 돌산에 누워 있는 듯 하구나.
 此時心境可生輝(차시심경가생휘)
 이 때 심경이란 찬란한 빛이 생기는 듯,
 遙遙萬里紅日輝(요요만리홍일휘)
 아득히 만리를 붉은 해가 비취고 있네.
 蕩蕩雲天海畔景(탕탕운천해반경)
 드넓은 구름이 바다를 뒤덮은 저 풍경은,
 海闊萬里若浮雲(해활만리약부운)
 만리나 광활한 것이 뜬 구름인 듯 하구나.

⑧ 客去山空

薄煙如醉如塵(박연여취여진)

얇은 안개는 취한 듯하고 비는 가랑비여서,

原景江邨更喜人(원경강촌경희인)

들 경치와 강마을은 더욱 나를 기쁘게 하네.

客去山空醉似泥(객거산공취사니)

손님이 떠난 빈 산이라 실컷 술에 취했는데,

又聞湖山高士來(우문호산고사래)

또 들으니 호산고사가 찾아왔다네.

岸風柳姿皆妙筆(안풍류자개묘필)

바람에 날리는 강가의 버들은 모두 묘한 솜씨요

幽篁坐裏可醉眠(유황좌리가취면)

그윽한 대숲자리는 취하여 잠 잘만 하여라.

醒來忘却人間事(성래망각인간사)

술 깨고 나면 세상사를 아주 잊어버리고,

飄飄凡欲成神仙(표표범욕성신선)

아득히 신선세계로 나갈 수 있을 듯 하다네.

遙岑翠色應可餐(요잠취색음가찬)

먼 산봉우리의 비취색은 먹을 수 있을 듯 하고,

小軒竹榻解幽煩(소헌죽탁해유번)

작은 마루의 대나무 책상은 번뇌를 풀만하네.

萬綠結翠掩幽窗(만록결취엄유창)

온갖 푸른 가지로 그윽한 창을 엮었더니,

客來清靜亦欣然(객래청정역흔연)

나그네 찾아와 맑고 고요함에 또한 기뻐하더라.

⑨ 獨在山中

友住幽篁裏(우주유황리)

벗과 내가 그윽한 대숲 속에서,

終日撫古琴(종일무고금)

하루 종일 거문고를 탭다네.

訪談笑塵世(방담소진세)

거침없는 말로서 티끌세상을 웃으니,

凡人能成仙(범인능성선)
 속세 사람이라도 신선이 될 수 있구나.
 聊無淸淨處(요무청정처)
 애오라지 청정한 곳이 없고,
 多事且相煩(다사차상번)
 일도 많고 또 서로 번다하여라.
 輕舟飄湖山(경주표호산)
 가벼운 배는 표표히 호산을 지나가고,
 吉日來相訪(길일래상방)
 좋은 날 나를 찾아온다네.
 笑傲無不言(소오무불언)
 빙긋 웃으며 서로 말이 없다가,
 聊醉且休眠(요취차휴면)
 술에 취해 편안히 잠든다네.
 幽樹醉高士(유수취고사)
 그윽한 숲에서 취한 고사는,
 泊舟待主人(박주대주인)
 배를 대고 주인을 기다린다네.
 隔岸無市舟(격안무시주)
 강둑 사이하고 배를 살 수 없으니,
 處處生塵煙(처처생진연)
 곳곳에서 티끌이 생겨나는구나.
 獨在山中老(독재산중로)
 홀로 산중에서 늙어 가노라니,
 寒松見少年(한송견소년)
 겨울 소나무에서 소년시절 기억하네.

⑩ 空山無事

靜養千年壽(정양천년수)
 천년 목숨을 정양하면서,
 高樹自隱居(고수자은거)
 높은 나무처럼 은거하노라.
 蓬門隔碧水(봉문격벽수)

송대문은 푸른 물과 마주했고,
 松柳掩幽軒(송류엄유현)
 소나무와 버드나무가 내집을 막았어라.
 避世乾坤窄(피세건곤착)
 세상을 피해 사니 천지가 좁고,
 安家日月長(안가일월장)
 편안한 내 집이라 세월이 길다네.
 唯自高客往(유자고객왕)
 오로지 높은 손님만 나를 찾아오고,
 靑山伴我居(청산반아거)
 푸른 산이 나와 짝해 살아간다네.
 神淸思古事(신청사고사)
 정신이 맑아 옛일을 생각하고,
 海風聲暮蟬(해풍성모선)
 파도소리는 매미소리인 듯 들리네.
 終日無冠帶(종일무관대)
 종일토록 관대를 하지 않으니,
 空山無事非(공산무사비)
 빈 산이라 아무 일도 없어서라네.
 系舟湖山畔(계주호산반)
 배를 호수와 산 사이에 매어두고,
 往來白雲間(왕래백운간)
 흰구름 사이로 오갈 뿐이네.

⑪ 河山佳景

竹樹作杖手中盤(죽수작장수중반)
 대나무 지팡이 짚고 손에 쟁반 들고,
 歲歲閑步舊湖間(세세한보구호간)
 해마다 한가롭게 옛 호수를 거닌다네.
 借問老翁何處去(차문노옹하처거)
 묻노니 노인은 어디로 가셨는가,
 山中水畔可耕田(산중수반가경전)
 산 속 물가에서 밭 갈고 계신다네.

遠岫孤雲日日閑(원수고운일일한)
 아득한 봉우리와 외로운 구름은 날마다 한가롭고,
 老身無事水雲間(노신무사수운간)
 늙은 몸 구름과 강물 사이에 일 없어 한가하네.
 猶稱老鶴臥秋崗(유칭노학와추강)
 늙은 학이라 불리며 가을 봉우리에 누웠으니,
 千幾萬綠抑神仙(천기만록억신선)
 천만 푸른 산이 도리어 신선인 듯하네.
 曲高和空人無語(곡고화공인무어)
 고아한 곡조 계곡에 울려도 듣는 이 없어서,
 隔岸煙水掩孤村(격안연수엄고촌)
 물안개 핀 저편 강둑이라 사립문 닫아걸었네.
 河山佳景凡人賞(하산가경범인상)
 아름다운 경치를 속세 사람과 구경하니,
 舊時首作凡登臨(구시수작범등림)
 옛날에는 남 먼저 산봉우리에 올랐었지.
 野水無人舟已去(야수무인주이거)
 강에는 사람 없고 배는 이미 떠났는데,
 孤翁堤上正吟詩(고옹제상정음시)
 외로운 늙은이 독 위에서 시 읊조릴 때로다.

⑫ 登高壯觀⁹⁾

登高壯觀天地間(등고장관천지간)
 높이 올라 천지의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니,
 大江茫茫去不回(대강망망거불회)
 아득한 저 큰 강은 흘러가 다시 오지 않는구나.
 石壁樹立點蒼翠(석벽수립점창취)
 우뚝 솟은 석벽은 점점이 푸른빛이요,
 丹青畫出是青山(단청화출시청산)
 단청으로 그려낸 것은 바로 청산일레라.
 巨帆萬里波濤裏(거범만리파도리)
 큰 돛배는 만리나 되는 파도 사이에 보이고,

9) 이 시는 내용으로 보아 叢石亭圖에 붙인 讚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高閣一望勢懂心(고각일망세동심)
 높은 집은 바라보기에도 그 형세 가슴 설레네.
 山搖地動滄滄海(산요지동창창해)
 산과 땅이 흔들릴 듯한 드넓은 바다여,
 巨風吹入胸肺間(거풍취입흉폐간)
 큰 바람이 가슴속으로 휘몰아 칠 듯 하네.
 石笋萬仞立海畔(석순만인입해반)
 돌기둥 바닷가에 만 길이나 높게 솟아 있고,
 松風陣陣海雲吹(송풍진진해운취)
 솔바람 바다구름 싣고 자주 불어오누나.
 不知何處帆歸來(불지하처범귀래)
 어디에서 돛단배 떠오는지 알 수 없는데,
 大浪涌涌嘆奇絶(대랑용용탄기절)
 큰 파도는 넘실넘실 나를 놀라게 하네.

⑬ 夏山多雲¹⁰⁾

夏山多雲雲且濕(하산다운운차습)
 여름산이라 구름이 많고도 습한데,
 煙嵐點翠溪水飛(연람점취계수비)
 김과 아지랑이는 점점이 푸른 시내물에 날리네
 半坐閑禪觀流水(반좌한선관류수)
 비스듬히 앉아 가만히 흐르는 시냇물 바라보니
 林木澗然古山間(임목간연고산간)
 나무와 숲들이 옛 산 속에서 아름답도다.
 天地一何闊(천지일하활)
 이렇게 드넓은 천지간에,
 隱者留其名(은자류기명)
 은둔자는 그 이름을 남겼도다.
 山色染靑翠(산색염청취)
 산색은 푸른 기운에 물든 듯,
 野境一時新(야경일시신)
 들 모습은 한꺼번에 새롭기만 하네.

10) 이 시는 글자 수와 韻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썼다.

百溪終歸海(백계종귀해)
 백 갈래 시냇물 마침내 바다로 흘러들고,
 萬水也化煙與雲(만수야화연여운)
 만 곳의 물들도 연기와 구름이 되고 마네.
 痴醉山林遠俗景(치취산림원속경)
 산림에 취해 들어 세속 경치와는 멀리하고,
 不是神仙勝神仙(불시신선승신선)
 신선은 아니라도 신선보다 뛰어나네.
 畫師一筆變春秋(화사일필변춘추)
 화사의 한 붓에 봄과 가을이 변하니,
 人間萬物景中留(인간만물경중류)
 인간 만물이 모두 그림 속에 남았어라.

⑭ 逍遙自在

澄江浮野色(징강부야색)
 맑은 강엔 들 경치가 비추이고,
 此堤貯秋光(차제저추광)
 이 둑엔 가을 빛깔이 어려 있구나.
 長堤遠游童子樂(장제원유동자락)
 긴 둑엔 멀리 동자들과 거니는 즐거움 있고
 水接西江玉龍聲(수접서강옥룡성)
 물에는 서강의 옥룡소리 들리는 듯하네.
 每因路上西南望(매인노상서남망)
 늘 길가에서 서남쪽을 바라보고서야,
 始覺人間道路長(시각인간도로장)
 비로소 인간의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노라.
 林隱路歸秋色裏(임은로귀추색리)
 숲속 길은 가을 풍경 속으로 돌아들고,
 招賢寺在古林中(초현사재고림중)
 초현사는 옛 숲 속에 자리잡고 있노라.
 久恨春去無處覓(구한춘거무처먹)
 오랫동안 가 버린 봄을 찾지 못했더니,
 不知輕入此山來(부지경입차산래)

알지 못하고서 얼른 이 산으로 들어왔네.
 吟詩思久成雅癡(음시사구성아치)
 시를 읊조리며 한참을 생각하다 병이 되었고,
 遠行樂道無盡路(원행낙도무진로)
 멀리 떠난 나그네 즐거운 길 다함이 없구나.
 藥坐雲游出事塵(얼좌운유출사진)11)
 그루터기에 앉아 구름 타고 티끌 세상 떠났다네.
 歸來着我素衣衫(귀래착아소의삼)
 돌아와 내 흰옷을 입고서,
 逍遙自在酒中仙(소요자재주중선)
 스스로 소요하며 주중신선이 되었다네.

⑮ 千山萬徑

山遠疑無樹(산원의무수)
 먼 산이라 나무가 없는 듯 하고,
 天風不是歌(천풍불시가)
 부는 바람은 노래가 아니라네.
 千山有萬徑(천산유만경)
 천 개의 산에는 만 갈래 길이 있고,
 野谷多雲煙(야곡다운연)
 들 계곡에는 구름 기운 많기도 하여라.
 泉飛山潤裏(천비산윤리)
 샘이 솟아 산의 윤기 난 곳에,
 峰出半雲天(봉출반운천)
 봉우리가 구름 사이로 그 모습 반쯤 보이노라.
 西南萬壑注(서남만학주)
 서남쪽으로 만 개의 골짜기 흘러내리고,
 石梁高鳥飛(석량고조비)
 돌다리 위로 물새가 높이 날아가네.
 茅屋正幽隱(모옥정유은)
 띠집이라 은거하기 안성맞춤인데,
 藏在萬柳間(장재만류간)

11) 시의 내용과 行으로 보아 이 行의 앞 行이 빠졌음을 알 수 있다.

만 가지 버들 늘어진 곳에 자리잡았네.
 雲淨山浮翠(운정산부취)
 구름 맑은 곳에 산 기운 푸른데,
 無人景自幽(무인경자유)
 아무도 없어 그 경치 절로 그윽하여라.
 雅士林間睡(아사임간수)
 깨끗한 선비 숲속에서 졸고 있으니,
 浮生一日閑(부생일일한)
 덧없는 인생이라 하루가 한가하네.
 名山都尋遍(명산도심편)
 명산을 두루 찾아보니,
 此地可一醉(차지가일취)
 이곳이 바로 취할만한 곳이로구나.

⑩ 身處深山

牽負胸中白萬兵(고부홍중백만병)
 잘못으로 흉중에 백만 군사를 등졌으니,
 百無聊賴仙詩鳴(백무료뢰선시명)
 의지하여 선시를 읊조릴 사람 없구나.
 身處深山遠城郭(신처심산원성곽)
 깊은 산에 몸을 숨겨 성곽과 멀리 있고,
 松山野谷杳人煙(송산야곡묘인연)
 소나무 산 들 계곡이라 사람 흔적 아득하네.
 半隱半詩觀虛境(반은반시관허경)
 반은 은이요 반은 시라 빈 경계 보이니,
 天地造化無限功(천지조화무한공)
 천지조화의 무한한 공이로구나.
 坐有清風石上琴(좌유청풍석상금)
 맑은 바람 부는 바위 위에 앉아서 거문고 타고,
 行在萬千竹海中(행재만천죽해중)
 천만리 발걸음이라 대나무 숲까지 이르렀네.
 野泉聲中誰通屐(야천성중수통극)
 들 샘물소리 나는 중에 누가 나막신 신고 지나갔나

落葉林中自看書(낙엽임중자간서)

낙엽진 숲속에서 스스로 책을 본다네.

⑰ 重尋茅屋

夾岸垂柳三百里(협안수류삼백리)

협안에는 삼백리나 버들이 드리웠는데,

只應圖畫最相宜(지응도화최상의)

다만 그림과 서로 가장 잘 어울린다네.

重尋茅屋依舊式(중심무옥의구식)

다시 떠집을 찾으니 옛 모습 그대로인데,

雲煙濕氣繞林行(운연습기요림항)

운연과 습기가 숲을 에워싸고 있구나.

染翰雲山春有趣(염한운산춘유취)

붓으로 물든 구름산은 봄 정취 담겨있고,

萬山深處宜幽居(만산심처의유거)

만산 깊은 곳이라 은둔하기 알맞도다.

湖畔無人門深鎖(호반무인문심쇄)

호수가엔 사람 없어 문이 굳게 닫혀있고,

讀書人在榻上眠(독서인재탑상면)

글 읽는 이는 책상머리에서 잠들었네.

真是超然五湖客(진시초연오호객)

참으로 초연한 오호의 나그네니,

忽去忽來自漫遊(홀거홀래자만유)

갑자기 갔다 다시 오며 마음대로 노닌다네.

拂雲春館人未老(불운춘관인미로)

구름을 떨치는 봄집이라 사람은 늙지 않았고

隔江獨作洞庭詩(격강독작동정시)

강을 다시 하고 홀로 동정시를 읊조리네.

⑱ 臥在舟中

閑雲深處正寂寥(한운심처정적료)

한가로운 구름 깊은 곳 참으로 조용한데,

載酒舟中賞煙漫(재주중상연만)

배 안에 술을 싣고 안개 경치 구경한다네.
 塵間萬事非吾事(진간만사비오사)
 티끌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요,
 峰前雲水正徘徊(봉전운수정배회)
 봉우리 앞 구름과 물 따라 배회한다네.
 莫將功名作追逐(막장공명작추축)
 공명을 따라 이리저리 오가지 말게나,
 此身應作山水游(차신응작산수유)
 이내 몸은 마땅히 산수 사이에 노닐 것을.
 臥在舟中思古事(와재주중사고사)
 배 안에 누워 옛 일을 생각해보며,
 爲作古賦贈樵人(위작고부중초인)
 옛글을 지어 나무꾼에게 전해주었다네.
 榮得佳句尋佳紙(영득가구심가지)
 아름다운 시구를 지어 좋은 종이를 찾고,
 臥游更作筆生輝(와유갱작필생휘)
 누워서 노닐며 다시 글 지으니 붓 끝에 빛이 나는구나.
 走筆神仙眞傲骨(주필신선진오골)
 붓을 달리게 하는 신선이라 참으로 자랑할만한 사람이라
 裁將盛景入柴齋(재장성경입시재)
 아름다운 경치 읊조리며 사립문 열고 들어간다네.

①9 江山無風

老眼平生空四海(노안평생공사해)
 늙은이가 평생동안 빈 세상만 바라보니,
 悟山老木碧雲閑(오산노목벽운한)
 오산의 늙은 나무는 푸른 구름사이에 한가롭구나.
 松秀自古生險境(송수자고생협경)
 소나무는 옛부터 험한 곳에서 자라고,
 淸曉石楠花溪流(청효석남화계류)
 이른 새벽이라 석남화 시냇물에 흘러가네.
 江山無風雲深厚(강산무풍운심후)
 강과 산에 바람 없으니 구름은 더욱 두텁고,

萬幹雄峯下筆難(만간웅봉하필난)
 많은 나무와 봉우리는 그리기 어렵구나.
 山骨氣勢驚風雨(산골기세랑풍우)
 바위 산의 기세에 비바람 시원하고,
 松風終日吹隱隱(송풍종일취은은)
 솔바람 종일토록 솔솔 불어오네.
 不覺碧山生暮色(불각벽산생모색)
 푸른 산에 어둠이 밀려옴을 깨닫지 못했는데,
 和雲龍又生几重(화운용우생재중)
 구름 탄 용이 여러 차례 다시 생겨나네.
 夜雨吹鎖萬里塵(야우취쇄만리진)¹²⁾
 밤비 내려 만리 티끌 없앴다네.

㉔ 天公作美

溪山四時佳(계산사시가)
 산과 계곡이 사철 아름다운데,
 今夕更奇妙(금석갱기묘)
 오늘 밤은 더욱 기묘하구나.
 天公妙作美(천공묘작미)
 조물주가 아름답게 꾸며서,
 施此一冊雪(시차일책설)
 이 한 책의 눈을 만들어냈구나.

㉕ 孤舟蓑衣

最喜東山晴時雪(최희동산청시설)
 가장 기쁜 것은 동산에 눈 개일 때이니,
 孤舟蓑衣閑垂釣(고주사의한수조)
 도롱이 입고 외로운 배에서 한가롭게 낚시 드리우네.
 瑞雪飛花銀世界(서설비화은세계)
 서설이 꽃비처럼 내려 은세계 이루니,
 一江寒碧遠塵俗(일강한벽원진속)
 은 강이 뒤덮여서 인간 세상과 멀어졌네.

12) 시의 내용과 行으로 보아 이 行의 앞 行이 빠졌음을 알 수 있다

洗去人間利欲苦(세거인간이익고)

인간 세상 이익의 고통 씻어버리고,

來作閑翁江山游(내작한옹강산유)

와서 한가로운 늙은이로 강산에 노닌다네.

槎川 李秉淵 書(사천 이병연 서)

사천 이병연이 썼다.

4. 朴有道の 後序¹³⁾

호를 西園主人이라 한 朴有道(?-?)는 趙顯命의 서문과 李秉淵의 찬시가 붙은 謙齋 鄭叡의 이 山水畫冊을 소장하고서 萬壑千岩 縹緲無際라는 찬문과 후서(1백65字)를 같은 크기의 장지에 썼다.

찬문(후서의 제목) 8자는 다음과 같다.

萬壑千岩 縹緲無際(만학천암 표묘무제)

일만 골짜기와 일천 바위들이 참으로 아득하여 끝이 없네.

후서 1백65字는 다음과 같다.

此冊爲謙齋之精意之作。久覽之四味無窮。論之畫法無不溫雅絕俗氣味深醇。千岩萬壑布置用心意境飄逸。筆墨清雅平澹趣齋奇散疏密。水邨農舍浦晴沙明。遙岑送青別饒幽趣萬松繡岑盡出筆下實無愧大師之筆矣。見者無不擊節贊嘆。此乃吾土吾國之大藝匠矣。觀其精到之作始有欲仙之感。藏之畫賞觀之彷彿可成仙人矣。今日得觀此冊絕非凡人可獲得之絕品得此寶藏實乃三生之幸也。可稱海內一奇矣。

(이 책은 겸재가 정성을 다하여 만든 작품이다. 오랫동안 이 작품을 펼쳐서 보면 그 맛이 끝이 없다. 화법을 논해보는다면 온아하지 않음이 없고, 속세를 완전히 떠난 기미가 있어 깊고도 순박하다. 천 개의 바위와 만 개의 골짜기가 펼쳐져 있는데 용심과 의경이 표일하다. 필묵이 청아하면서 평담하고, 정취 있는 집들이 기이하게 배치됨이 소묘하고, 갯마을과 농사집이 포구마다 맑고 흰모래가 펼쳐졌다. 먼 멧부리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별장의 그윽한 정취와 수많은 소나무로 수 놓인 산들이 모두 붓끝에서 그려지니, 이는 실로 큰 화가의 솜씨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리라. 이 그림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감탄해 마지않음이 없다. 이 사람은 곧 우리 동방 우리 나라의 큰 예술가이다. 그의 아주 잘 된 작품에 이르면 비로소 신선이 되고자 하는 느낌이 있을 정도다. 이 그림을 갈무리하여 늘 보면 거의 신선이 될 수 있을 것이리라. 오늘 이 책을 얻어 볼 수 있게 된 것은 속세의 사람으로는 결코 얻기 어려운 것

13) 이 찬문(후서) 역시 산수화책에 붙일만한 글이다. 또 이 글 때문에 趙顯命의 전서와 李秉淵의 찬시가 鄭叡의 산수화책에 붙여진 것임이 확실해졌다. 글의 내용은 최고의 찬사로 쓰여졌다. 趙顯命의 前序와 朴有道の 後序의 구독점은 필자가 짚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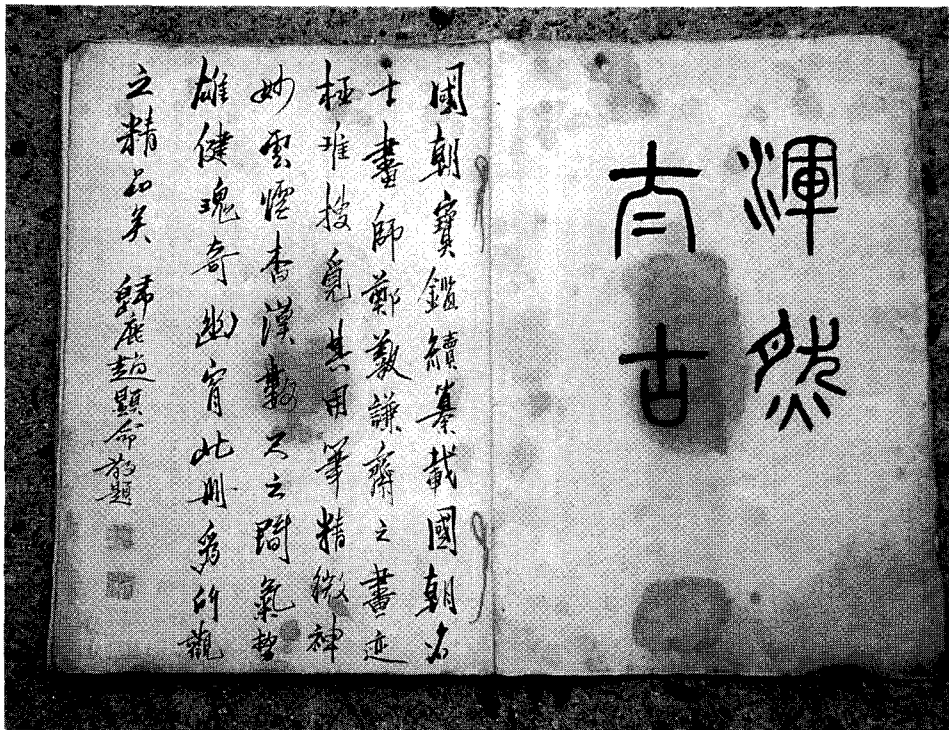
이었는데, 뛰어난 작품(절품)을 얻어서 이 보물을 갈무리할 수 있게 된다면 실로 이는 삼생의 다행으로 우리나라(해내)의 한 기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西園主人 朴有道 敬題(서원주인 박유도가 삼가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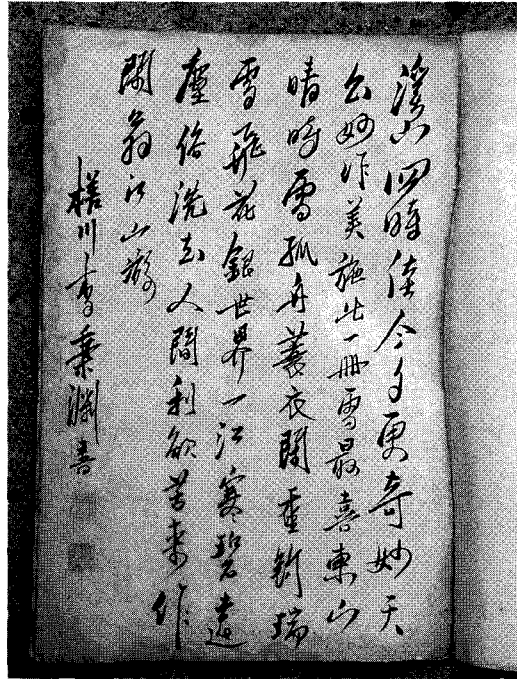
5. 맺음 말

제주와 배움이 모자라면서 겸재 정선의 산수화책에 붙인 글과 시를 보고서 몇 달 동안 그림을 찾고(결국 찾아내지 못했지만) 찬문과 찬시를 번역하느라 공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쉬움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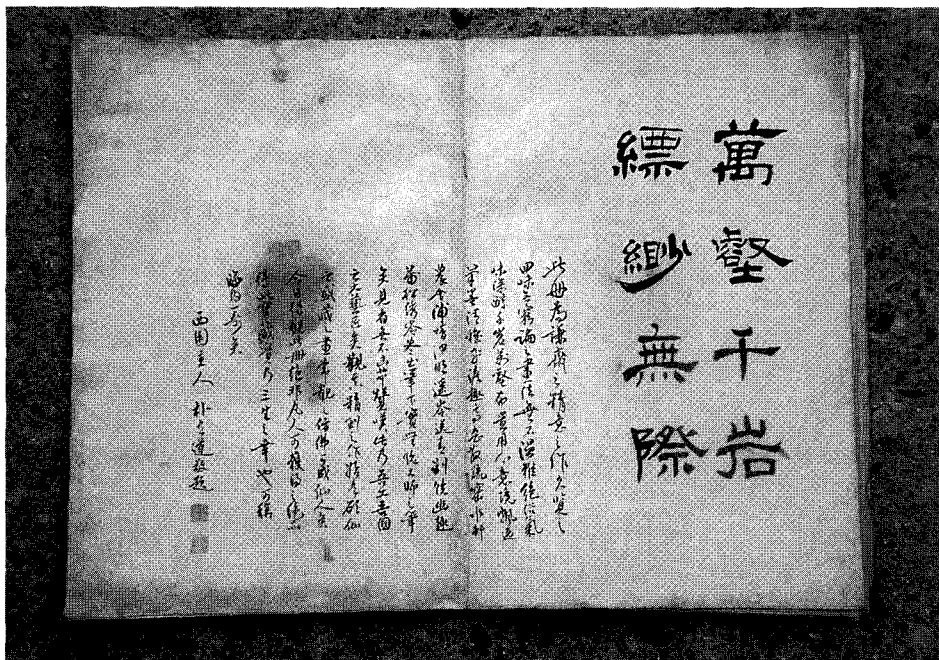
겸재회화와 이병연문학을 공부하는 동료학자와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땀을 흘렸을 뿐이다.



<사진 1> 산수화책 제목과 조현명의 전서



<사진 2> 이병연의 찬시



<사진 3> 박유도의 후서